

盲人들의 관광



宋 熙 徹

오월 맑고 푸른 어느날. 맹인 십여명이 지리산으로 관광을 왔다. 광택이 나는 자주색 봉고차를 타고 들어온 일행은 차단기로 길 반쪽을 막고있는 매표소 앞에서 일단 차를 멈추고 안내자인 듯한 젊은이 하나가 하차하여 반달 모양으로 뚫어진 매표구에 천원짜리 한장을 드리밀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공원관리소 매표원이 벌떡 일어나 차가 서있는쪽을 가리키면서 저분들은 안들어가 십니까 하니 .

아, 저분들이요. 앞못보는 맹인들이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맹인이어서 관광할수가없고성한 사람은 자기와 기사 두사람밖에 없으니 입장권을 두장만 끊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장권은 들어가지만 해도 사야 하는것이 기때문에 모두가 구입하여야 된다고 매표원은 조금은 빈정거리는데 그러나 웃는 낯으로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는것이 없는 눈먼 봉사한테 어찌하여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것이냐 하고 이번에는 그 젊은 안내자가 크게 불끈하며 따져들었다. 매표원은 난처해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한편 생각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어딘가 당연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것 같기도 생각되었다. 그렇다고 무료 입장해도 좋다는 규정이 없고 관람료가 아닌 입장료이기때문에 입장권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번에는 조금 미안해진 얼굴로 권유했다.

한동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차안에 앉아 바깥 동정을 살피던 맹인 한사람이 지팡이를 들어 앞을 짚으면서 차속을 내려오더니 안내원인듯한 젊은이를 옆으로 밀어내고 정중하게 모자까지 벗어들며 우리가 비록 앞못보는 장님이지만 산

도 보고 물도 보고 바람소리도 들을수가 있으니 입장권을 사는것은 마땅하다고 호주머니에서 오천원짜리 지폐 한장을 꺼내어 매표원 앞에 내미는 것이었다. 젊은 안내원은 그게 아니라고 잠시 우기는듯 했지만 그분의 의연하고 떳떳한 태도에 멀쩡해지고 말았다. 그분의 젊잖은 언행에 이번에는 매표원 쪽에서 잠간 망설이는 듯했다.

자, 받으시오. 그분은 참으로 당당했다. 죄송합니다. 돈을 받아든 매표원은 흔쾌히 십여장의 입장권을 끊어 그분의 손에 쥐어드리면서 깊숙히 허리를 구부려 큰 절을 했다.

그렇구나 눈이 멀어 앞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의 눈은 누구보다도 밝게 떠서 오히려 눈뜬 사람들의 눈먼짓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별경게 핏발선 세상사람들의 살덩어리 눈알, 부릅떠 설새없이 굴리면서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앞에 육체의 눈은 잃어버려 실명했어도 더 멀리 심안을 주어 사물을 깊숙히 헤아려 바라다볼줄 아는 그분은 광휘를 발하는 현자의 자세로 우리들 앞에 우뚝 서있는 것이었다.

지리산은 지금 더없이 푸르러 생동하는 모습이 다. 겨울동안 앙상하게 메말라 추위에 떨던 수목들이 봄이되자 갖가지 야생화들을 아름답게 피우며 넉넉히 수분을 빨아올려 연록색의 작은 이파리를 돋우더니 이제는 질푸른 새옷으로 다듬어 갈아입고 싱그러운 대자연의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 오묘한 아름다운 분명 마음의 눈이 깨끗하게 떠진 사람이 라야 드디어 바라볼수 있는 광경이 아닐수 없다.

푸르름으로 하늘에 뻗쳐오르는 무성한 숲의 머리위를 쓴살같이 미끄러져 내리는 찬란한 금빛 햇살,

골짜기마다 아우성치며 시원하게 부서지는 맑은물, 이와같이 조화된 대자연의 모습은 맹인 그분과같은 혜안이 없으면 도저히 느껴볼수 없는 신비의 모습 일것이다.

그리 멀지않은 나지막한 골짜기에 자리를 정한 맹인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냄새를 맡기도하고 커다란 바위를 가만히 더듬어 손으로 쓸어보기도 하고 차갑고 맑은물을두손으로 떠올려 얼굴을 적셔보기도 하면서 얼마동안을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며 멀리 가지 못하더니 어느결엔가 홀연히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 때문지 않은 자연의 품에 말려가듯 그렇게 흔적없이 사라지고 만것이었다. 거저 받는 것이랴

기분이 좋고 어디든 공짜배기로 들어가는것이 체면이 서고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우리네 속심들. 술마시며 떠들며 쓰레기만을 흩어 놓고도 기세 좋게 큰소리만 치고가는 못난 사람들, 그들도 저 맹인과같이 거역하지 못하는 커다란 결합과 역경이 있어 그것을 아프게 극복했을때 맑은 마음의 눈이 비로소 떠지는 것이 아닌가!

〈筆者약력〉

- 月刊文學으로 登壇(詩)
- 韓國文人協會 會員
- 未來詩, 表現, 牟陽村, 同人
- 全北 隨筆文學會 會員
- 現在, 智異山國立公園 全北 管理事務所 所長

長安山 郡立公園으로 指定

全北道는 8月 5日 長水郡 長水邑 德山里와 東村里일대 6.38km²를 長安山 郡立公園으로 지정했다. 長安山 郡立公園은 해발 1천 2백 36m의 長安山봉과 역새초가 조원을 이루는 구릉이 있고 88올림픽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德山을 끼고있어 탐방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공원 지역 내에서는 지성가지골등 계곡15개소와 長安山봉등 상봉 4개소 신선바위등 기암 14개소 폭포 1개소 연못 6개소 약수터 4개소 절터 2개소 등의 資源을 保有하고 있다.

自然을 自然 그대로 있게함이 最善

長水의 명소 長安山 德山里와 東村里 일대 6.38 km²가 郡立公園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 일대는 그야말로 秀麗한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는 빼어난 風致地區다. 이곳은 좀 더 일찍 郡立公園으로 지정되어 개발과 保護가 가해졌어야 했는데 그동안 郡 당국과 郡民들의 요망이 묵살된 상태에서 서서히 오염의 위험을 느끼게 된지역이다. 그러나 이제 뒤늦게나마 공원지정을 받아 개발계획과 보호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니 한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한 두가지 부언할 일은 첫째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면적이 다소 협소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현지를 답사해보면 알수 있는 일이지만 德山 계곡을 주 맥으로한 山水의 構造는 가히 全北 최고라 할 만큼 規模가 크고 장엄하다.

이름 높다는 茂朱덕유산 계곡과 비교 걸코 영세하지 않고 우람하다. 다만 「郡立」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개발이나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무조

건 공원 영역을 확대할 수는 없다해도, 6.38km²라면 어느 부챗집 앞마당 정도가 아니냐 싶어 아쉽다.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솟구칠 만큼 德山 계곡은 아름답고 조화가 오묘한 곳이다. 이 영역 확대는 앞으로 개발 관리를 해나가면서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둬야 하겠다.

둘째 長安山에서 德山에 이르는 일대의 원시림 벌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것이다. 이 일대의 울창한 森林은 석탄공사측의 갱목 조달처였다. 채탄용 갱목조달을 한다는 이유로 상당량의 林木이 벌채되었으며 또한 벌채예정으로도 있다. 「郡立」공원의 지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의 하나는 재목조달 운운의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공원 지정이 된 만큼 단 한 그루의 自然木도 잘라내선 안된다. 물론 공원지정 영역안의 森林은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지정된 영역의 주변森林도 마찬가지로이다. 공원지역인 6.38km²만 남겨놓고 그 주변을 갱목조달을 위해 깎여나간다면 결국 공원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저런 시비의 근원을 아예 뿌리채 뽑아놓자는 것이다. 끝으로 공원개발에 있어 그 핵심은 어디까지나 風致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해주기 바란다. 덮어놓고 길을 내고 불편스럽다고 해서 바윗돌을 까놓개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자연경관을 존중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뜻말이나 게침물(바위 등에)설치를 삼가야 할 것이다. 自然을 自然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최상의 공원 개발이며 관리라는 점을 깨닫고 위락시설등의 설치등엔 신중을 기해주시 바란다. 德山은 다만 長水邑民의 보배가 아니라 全北道民과 전체국민의 소중한 자원임을 알아야 한다.

86年 8月 7日 字 全北日報 社說